

히브리 입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서책에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으므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바울사도가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글의 형태가 바울이 쓴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의 의견일 뿐이며 별로 의미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 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단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기를 바라며 혹시 당신들이 “야 그것은 단지 그의 생각이야” 라고 말하고 받아 들이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여 좋은 것만 취하면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이 저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이 저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 후서 3:16)

이 책은 제목이 히브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물론 히브리 크리스찬들 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직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신자들에게 와서 활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선언함으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교를 믿는 자와 기독교를 믿는 자들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사람들과 먹지도 않고 또 어떤 특수한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 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전에 가서 경배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면서도 심지어는 성전가서 실제로 제사도 드리는 일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금 유대 종교제도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추구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기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장차 올 왕국을 맛보고 옛날로 돌아가서 죄 사함을 얻기 위 하여 다시금 제사장 앞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드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은 이미 존재 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볼수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입니다.

마치 당신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이상한 위치에 처할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출생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할때에 당신의 존재를 미국 정부 당국에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한다는 우스꽝스런 일입니다. 내가 여기 있소. 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존재를 증명하려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려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주신 사실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일이요 또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두가지를 보아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지사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때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것을 인정합니다. 성경, 곧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달자들이 었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그 어원이 전달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들 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기름부은받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우리는 그장소에 접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져 했을때 그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때에 여러모양으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공 부해보면 아주환상적인 방법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것을 볼수있습니다.:오랜기간동안 한쪽으로 누워있는것 그리고 돌려서 다른쪽으로 누워있는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방법과 여러다른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많은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잘못이해 되었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마지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해 곧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할일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될수있습니다.

“이모든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모든 다른 계시보다 훨씬 월등한 것입니다. 오늘밤 우리가 그렇게 바뀌질 것입니다. 첫번 두장은 그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월등하므로 천사들을 통한것 보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계시가 월등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말한것 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욱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인 모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일수가 없었고 단지 그땅을 가르키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으나 그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호수아 보다 월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 왔으나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4장). 그리고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제사장 직분 보다 월등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을 레위지파의 제사직분과 비교해 볼때에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이 더좋은 언약이요 더좋은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이 더좋은 희생의 제사요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이 훨씬 월등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양으로 여러 다른때에 우리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올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런 왕국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왕국의 국면에 대해서 일부 계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창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해서 조금맛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볼수있었고 이땅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수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상업주의로 이땅이 저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가 필요한 것들은 자유로이 취할수있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필요한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것입니다.

이세상에는 더 이상 병이 없고 신체 장애가 없을 것이며 앓은 방이가 기쁨으로 떨것이며 병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노래 할것이며 눈먼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런 세대와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통치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써 이 왕국을 통치하게 될것입니다.

“그정사와평강의더함이무궁하며또다윗의위에앉아서그나라를군

계 세 우 고 자 금 이 후 영 원 토 록 공 평 과 정 의 로 그 것 을 보 존 하 실 것 이 라 만 군 의 여 호 와 의 열 심 이 이 를 이 루 시 리 라”(이사야 9:7)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광의 세대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것을 이어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것입니다. 그를 통 해서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 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어 받도록 정하신 것 입니다.

둘째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셨느니라” (1:2)

예수 그리스도는 온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1:1”태 초 에 말 씀 이 계 시 니 라 이 말 씀 이 하 나 님 과 함 께 계 셧 으 니 이 말 씀 은 곧 하 나 님 이 시 니 라

1:2 그 가 태 초 에 하 나 님 과 함 께 계 셧 고

1:3 만 물 이 그 로 말 미 암 아 지 은 바 되 었 으 니 지 은 것 이 하 나 도 그 가 없 이 는 된 것 이 없 느 니 라” (요한복음 1:1-3).

골로세서에 보면(골로세 1장15절-17절)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니 16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셧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주가 달려있는데 effulgence란 말이 있습니다. 이말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어에 두말이 하나가 된 말인데 the first being off and the second being shining 이두말이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영광스런 광채가 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밝아 사람이 감지 할수가 없습니다. 광채가 너무밝아 볼수없고 사람이 그빛에 접근 할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발하는 광채 입니다. 천국에는 해나 달같은 빛이 필요가 없으니 어린 양이 빛이 될것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발하는 그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하는 그빛난 광채가 천국을 밝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카이나 영광이 구약 성경의 회막의 지성소를 밝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깥 마당에서 가로 15피트 세로 30피트 크기의 두부분으로 나뉘어있는 천막속의 첫번째 방인 성소로 들어 가봅니다

그 성소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 진설병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고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인 베일로 내려져있고, 그커튼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계시록에서 성령을 대표 하는 일곱금촛대가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커튼 뒤에 있는 방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방에는 불이 없습니다. 언약궤와 그위에 금으로 아로 새긴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그방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그빛난 밝음이 바로 하나님의 광채인데 그광채가 그리스도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본체의 형상이시라” (1:3)*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한 14:9)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는 아버지를 영관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신자는 아버지를 모셨고 아들을 거절한 자는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을 미워하면 서 아버지를 사랑할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거절하면서 아버지를 영접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눌수없는 한 묶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한분을 모시면 다른 분도 모시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1:3)*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은 나에게 큰 흥미를 갖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내용을 보면 그가 선언하면 그대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3). 히브리 문자 그대로를 보면 ‘*owr haya owr*’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가 말씀 하심으로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궁창이 있어 물과물이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한곳으로 뭉이고 마른 땅이 들어나게 하라’하시니 말씀하신 데로 그것이 존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셨다. 라고 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면 핵속에 양성을 띤 두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이고 다른 하나는 중성자인 것입니다. 양성을 띤 두물체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양성을 띤 전자는 서로가 밀치는 전기에 대한 쿨럼의법칙(Coulom'sLaw)에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손가락의 양성을 띤 물질을 북극에 놓고 같은 양의 양성을 띤 물질을 남극에 놓았다면 이들이 서로 밀침으로 이들을 붙드는데 필요한 힘의 압력이 30,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먼 거리에서도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여 이들을 붙드는데 필요한 힘의 압력이 30,000톤의 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남철을 가지고 두양성을 서로 붙이려고 시도 해보면 큰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적으로 양성을 띤 물질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붙들어 두려면 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이유는 전기적인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속에 두양성을 띤 물질이 전기적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자핵속의 균형에 타격을 줄때에 핵속의 양성을 띤물질이 자연법칙에 의한 본질의 성격을 나타낼것인데 이균형의 파괴로 인해 양성의 힘이 배출되는 무서운 힘이 원자폭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양성의 전자의 기질이 배출될때에 그 위력을 히로쉬마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양자의 붙드는 힘이 풀어질때에 나타나는 큰힘이 핵속의 두물질을 붙드는데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될수있는 기전을 가진 물질로써 이흥미스런 우주를 창조 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큰 Bang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놓으실때에 다른 큰bang이 일으날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이 온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놓여라'말하시면 원자속에 양성끼리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이 핵속에서 풀어질때에 얼마나 무서운 힘이 나타나서 큰뱅을 형성할것인지 가히 짐작 할수 있을것입니다. 양성을 띤 우주의 창조물들이 서로밀칠때에 우주의 끝없는 광대한 공간으로 폭발하는 일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창조만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가히 짐작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하는 일을 하시고” (1:3)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를 임신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를 아내로 대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또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찾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봉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겔렘마네 동산에서도 천사가 예수께 소중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천사가 그를 소중들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홀로져야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홀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드리는 일을 그날에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평일 매일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죄를 위해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홀로 그일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특수한 날에 그가 홀로 약 27마리나 되는 짐승을 도살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에 어떤 천사도 주님을 안위하기 위함이나 도움을 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놓은 곳에 계시는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1:3)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위성을 계시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다고 함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그는 천사로있다가 하나님의 위치로 된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교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공존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요한복음 1:1)

몰몬은 예수를 루시퍼의 형제인 하나의 그룹천사라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형제들을 불러놓고 이세상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계획을 제출했을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계획을 채택히심으로 루시퍼가 화가 나서 형제인 예수간의 경쟁심에서 이땅에 내려와 그의 계획을 모두망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는 천사인 루시퍼 보다 훨씬 월등 뛰어난다고 말씀하심을 볼수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루시퍼와의 같은 위치의 적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천사가 아니며 조물주인 하나님이 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루시퍼는 나쁜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좋은 형제 그리고 루시퍼는 나쁜형제의 관계도 아닙니다.  
루시퍼를 하나님또는 예수와의 같은 위치에 적수로 올려놓는 것은 망칙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많은 때에 하나님과 사탄은 반대인 원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질적으로 아주 다른 부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며 창조주 이신데 반해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이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며 변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툰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루시퍼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미가엘은 루시퍼와 다투어 변론할때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어 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유다9).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멧세지를 전했을때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를 붙들어 두고 있었는데 그때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놓아주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0:12-14)  
“군장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백성의 당한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미가엘과 사탄은 전에도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계시록에 앞으로도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

다.

예수님은 사탄과 적수가 아니고 미가엘 천사가 적수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1:4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 업으로 얻으심이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 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 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미가엘 천사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읍니다.

예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한복음 3:16)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1:5)

이에언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예언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이 전쟁으로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무엘후서 7: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7:14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 하려 니와

7:15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는 빼앗지 아니 하리라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 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 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너무나 그 축복이 크므로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7: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7:19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

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와 여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7:20 주 여호와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7:21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7:22 여호와와 하나님이여 이르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이가 없고 주의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과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할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삼하7:18-22)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할말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보나롤라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그 경배가 극치에 달할때는 할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 하였다. 하나님 너무나 축복이 큼니다. 다윗은 무엇이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다시금 그는 몇구절을 말했는데 이 사람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말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1:6 또 만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1:6)

이말씀은 구약에서 찾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말로 성경을 읽기를 원했던 동기에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히브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70인 역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히브리 구약 원문에서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 역에 보면 신명기 32:43절에서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브리 1:7-8)

여기에 또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고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도마도 그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 시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간 수치스런 일이 아닙니다.

시편45: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45:7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1: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주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히브리 1:8-9)

7절로 돌아 가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말씀은 시편 104: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4절에서 천사들의 봉사활동과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구절이 나올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1:10)

시편 102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1: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투고 같이 늙아 지리니 1:12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히1:11-12)

이말씀은 그의 아들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주는 점점태화되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매초마다 1,200,000톤의 물체가 소모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짝거리다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게 마련입니다. 하늘도 종이짜 처럼 모두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남아 있을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으지겠으나 나의 말을 결코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마태24:35). 물질적인 우주도 사라질 것입니다.

물계의 우주는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계가 모두 없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우리는 물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왜냐하면 물계는 모두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 할 것입니다..

1:13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히1:13)

그는 어떤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110:1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셔도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해서는

히브리 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이 아니뇨

천사들은 첫째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영들임을 볼수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하나님 “ 이라고 경배하는 스랍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하나님”이라고 그룹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첫째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광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하는 어떤 특수한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주위에서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스랍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언하며 경배들일때에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때에 자신이 사악한 죄인임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 다니여, 망하게 되었도 다니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뵈었음 이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의 불타는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깨끗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거기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때에 이사야가 그광경을 보고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쳤을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람을 봉사케하신 사실을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존재하며 그들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리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후사들을 돌보는 부리는 영들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시편91: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12 저희가 그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천사들은 실제로 부리는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천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라” 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읍니다.또 “내가 네원수로 네발등상되게 하기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하시지도 않으셨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림을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천사와의 큰 차이점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앞에서 경배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봉사하지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시며 봉사를 받으시며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 2장

2:1 그러므로 모든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더욱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들로부터 떠내려 갈가”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처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친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더욱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말씀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더욱 그말씀에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이 처해있는 위험한 일이 었읍니다.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위험한 위치 었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그말씀에 거해야 할것입니다.

2:2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2:3 우리가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계획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믿고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요한복음 3:19)

그래서 그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한말도 굳게 서고 그들의 말이 참되고 그대로 보존 되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야 말로 두말할 것 없이 얼마나 더욱 더 믿고 청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율법으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죄와 허물의 대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이말씀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떠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어떤 선한 행 실로 의롭게 되어 보고져 하는 일을 다시금 추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영광스런 구원의 멧세지를 선언 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뉘주신 것으로 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셨느니라(히2:4)

이 말씀을 처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말씀 곧 이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들은 제자들이 확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자신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성령의 나뉘주신 것으로 써 예수님께서 부터 이멧세지를 들은 제자들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증거 하였고 선언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이것이 참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로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에 따른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과 같이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뉘 주신 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수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데로 은사를 믿음으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생활에서 성령의 은사를 내마음데로 조절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말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으니 지금 내가 실시하겠다라고 말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성령이 내생활속에서 역사하시는 절대 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히2:5)

천사들은 앞으로 올세상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때도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될것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 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히2:6)

다윗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야외에서 활동하기를 좋아 한다면 다윗을 좋아 하게 될것입니다. 그는 남자중의 남자 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자입니다. 위대한 사냥꾼이며 위대한 스포츠 맨입니다. 다윗은 많은 때에 야영을 하면서 스막(smog) 이나 도시의 강한 밝은 빛이 없는 선명한 밤에 밝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곤했을 것입니다.

그는 누워서 캄캄한 유대땅의 밤하늘에 펼쳐져있는 아주 발게 반짝이는 별들 과 천체들 그리고 은하수가 깔려있는 별들의 세계가 휘황 찬란하게 빛나는 광활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아무존제도 아닌 얼마나 작은 인간 인가”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시편 8장에서 그의 읊은 시를 보면

시편 8: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들을 내가 보오니

8:4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시편 8:3-4)

하나님 내가 누구관대 나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이나 흐르는 시냇가나 사막에서 야영을 할때 캄캄한 밤하늘에 펼쳐진 선명한 무수한 별들과 은하수의 수십억의 천체의 무리들을 볼때에 다윗이 읊은 이시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나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무수한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길을 볼때에 “와 내가 무엇이냐?” 우주의 천체를 비교해 보면 이 지구는 수억의 은하수중의 한구석에 있는 해 주위를 도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해는 은하수안에 있는 수십억의별들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라는 존재는 우주 가운데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 안에서도 한점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전세계에서도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알수 없습니다. 특히 사막에 나가 보면 언덕위에 카요티(미국의 작은 늑대 종류) 우는 소리를 들을수 있고 가까운 곳에 방울뱀의 꼬리 흔드는 소리를 들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펴논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머리 위로 밤하늘의 고요함과 사막의 소리만을 들을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수천마일에 걸쳐 아무도 없고 자신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에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 하시 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특권을 내가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을 가지면서 그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내가 누구관대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방문 하시나이까?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가 가까이

계심을 인지 함은 어쩔인고”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썩우시며(히2:7)
그래서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그들은 몸의 형태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이 몸에 의해 제한 되는 것처럼 제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자로써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벽을 향해 걸어가면 밀어내는 힘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당신이 양성을 띤 물질의 밀어내는 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벽으로 한번 달려 가보십시오
지금 이론 적으로는 당신이 벽을 통과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단단 물질보다 그벽속은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단단한 물질보다 당신의 몸은 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공간이 없는 단단한 물질로 압축시킨다면 당신은 하나의 먼지가 되어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게는 같을 것입니다.당신의 몸의 원자가 단지 압축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크기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의 몸은 원자가 부풀어서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작은 물질이 전자 입니다. 2.5퀀틸리언 (1퀀틸리언이 100만의 5제곱)의 전자를 함께 부쳐 나열해보면 그길이가 1인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숫자를 계수한다면 일분에 250을 밤낮으로 계수한다고 가상할때에 19,000,000년이 소요됩니다. 전자는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보다 약간 큰 물질이 양자입니다.
원자의 핵주위를 돌고있는 전자의 거리는 만일 원자의 핵이 농구공 만큼 크게 확대한다고 가상한다면 핵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와 핵의거리가 3,000마일이나된다고 합니다. 원자의 핵과 그주위를 돌고있는 전자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압축된 물질보다 많은 공간이 있긴 하지만 양성을 띤 물질에 대해서 밀어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벽을 통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물질의 구조로 만들어 졌다면 그벽을 손상치 않고 바로 통과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구조가 다른 물질로 형성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두 문을 닫고 묶여 있을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이 있는 방에 나타 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세계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공존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통과할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물질의 근본이 다른 기질로 만들어졌을때 만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만들은 켈트기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멀리 있는 어떤 다른 대륙으로 향해서 우리 가운데로 신속히 지나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 가지만 서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런 개념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세계가 서로 통과 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나 실제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영들로 둘러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영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부리는 영들이 아닌가? 대부분 우리는 그들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며 도와주고 힘을 돋우워주고 봉사하고 찾아와서 도우는 손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나 우리들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물질 구조로 형성된 세계 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좌가 저멀리 먼곳에 있을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나 밤에 사막에 나가보면 수많은 별들을 볼수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를 그곳에 가려면 수백만년 광년을 지나야 갈수 있는 곳이 겠거니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도달하자면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릴것인가? 라고 생각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 끝에 계신다면 나의 기도가 빛의 속도로 간다해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120억 광년이 필요로 할것 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때는 이미때가 늦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 살고 우리는 움직이고 그안에 우리 존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의식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계시며 우리는 그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물질의 구성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썩우시고 그의 손으로 지어신 만물에 사람을 놓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모든 움직이는 것들과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p>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p>
<p>2: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p>
<p>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p>
<p>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p>
<p>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차압당한 세상을 되찾기 위하여 사람의 근친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이심으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를 볼때에</p>
<p>“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하)</p>
<p>이제 구속에 대한 모든것을 여러분이 포착하였을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로마서6;23).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모두 지우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았던 것입니다.</p>
<p>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땅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죽음의 정의가 다른것입니다. 땅에서 죽음에 대한 견지는 몸과 의식(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말기에 이르렀을때에 면도한 머리에다 EEG를 연결해두고 모니터를 주시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작은 선의 진동이 멈추고 평행으로 나타날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뇌의 활동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24시간 동안 뇌의 활동이 없을때에 전원의 스위치를 뽑고 그사람은 사망했다고 선언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24시간 동안 뇌의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가 산소를 갈구하는 어떤 살아있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산소를 다시 공급하며 말하기를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몸으로 부터 떠났을때는 사람들은 그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p>
<p>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에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되었을때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p>
<p>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외친</p>

말씀을 기억 하시지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점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때에 ”그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었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아야 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과 격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있지 않아 이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집으로 이사갈 것입니다. 그날이 기쁜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부터 결코 격리 되지 않으므로 이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하기를” 척스미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것입니다. 신문보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할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과거에도 아주 잘못되게 보도 한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충분한 상식이 있는 기자가 나의 영혼이 내몸인 천막을 떠났을 때에 “척스미스는 이 넓고 구멍이 많이 뚫린 천막을 떠나 아름다운 새로운 저택으로 이사 갔다” 라고 보도 해주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줄 아나니”(고린도후서 5:1)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 보셨읍니다. 그뜻은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부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것과 같이

“여호와 의 손이 짧아 구원 치 못 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 하여 듣지 못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사야 59:1-2)

이것은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2: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주시해보시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말씀은 골로세 일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또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그는 창조주 십니다. 그보다 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노들이 그룹천사들이 드리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자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주님께 영광송을 올렸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것이 있는데 내가 조물주인 예수를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읍니다. 당신의 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까지는 결코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만족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없고 갈등으로 만 가득차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순간 당신의 생활은 성취감과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2: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 2: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여호와 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 원하사” 이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장에 이르면 그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사실을 알게 될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란 말은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를 잃은 사람을 어떻게 단한번도 친구를 잃은적이 없는 사람이 그사람에게 위로를 할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한번도 경험못하고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자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해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자만이 그러한 슬픔을 당한자를 이해할수 있고 참으로 동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그 사정을 잘압니다 라고 그를 진실로 위로하고 도와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을 오려내는 듯한 슬픈일 인지 경험한자 만이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마치 삼킬수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그고통이 너무심해서삼킬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경험으로 잘 이해 하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움을 당할때에 우리를 도와 주실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하시는자와 거룩하게함을 입은자들이다 하나에서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히2:10)

다른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만들어 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귄이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과 사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하시는자와 거룩하게함을 입은자들이다 하나에서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히2:11)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 보신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의 형제라 부르심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된것임을 말씀하신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들의 지하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 어 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히2:12-13)

그래서 여기서보면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예수께서 우리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계신곳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한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소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을 그와 함께 나눌수있는 그와 함께하는 후사로써 아버지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한 말이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맛보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죽음을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 받을 이 영광스런 특권을 나에게 허락 하신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것 인가? 이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표시할수 있을까?

어떨때는 나는 거지와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것이 하나도 없습니

다.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였고 나는 그에게 드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입니다. 내가 연보께에 돈을 떨어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티비를 끄고 주님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다입니다. 당신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우리는 이러한 것 같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나는 혈육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몸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속하심은(히2:14)

그는 혈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한정된 육신의 몸을 입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피곤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발가락이 돌에 부딪힌 경험도 했습니다. 망치로 손가락을 잘못 쳐서 그 아픔도 경험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제한과 한정을 경험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몸의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2:14)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없이 한다는 없이하는 말이 katargero 인데 이말은 모든것을 끝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한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더이상 죄로 인해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나의 죄로 인해 결과한 사망에 관해서는 나에게 더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불의를 정결케하시고 하나님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자를 더이상 주관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사망을 더이상 선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 하지 말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2:15)

이것은 인생이 죄의 종이 되어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히2:16)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2: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  
심이라

2: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  
시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 합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몸의 제한성을 모두 경험 하셨으므로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하심으로 우리를 공휟히  
여길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생활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아십  
니다. 그는 세금을 낼돈이 없는 사람들의 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는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징세를 강요당할때의 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사정을 모두 아시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자들을  
공휟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때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떠한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흠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슴에다 “S”를 달고 자신을 “신령한 성도”로써 자처 하면서  
마치 한번 뛰면 총알보다 더빨리 날아가 고층건물을 뛰어넘을것 처림자신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가  
조심하 라’고했 습니다. 내가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  
가 보오 니(시편 8:3)

내일 새벽 4시경에 하늘에 구름이 다 걷힌 후 밖에 나가 서남쪽의 하늘을 바라보십 시  
요 그기에 오리온 성좌를 볼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성좌의 왼쪽을 바라 보면  
비틀기즈라는 큰 별을 볼수있습니다. 이별의 직경이 465,000,000마일인 것입 니다.  
이별중심에 해를 갖다 놓으면 그별둘레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별속에서 200,000,000마일을 더가야 그별의 가장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이별의 속도는 일초에 19마일의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별이 이러한  
속도로 별의 궤도를 달리고 있을까요?

이465,000,000마일의 직경을 가진 거대한 천체가 무슨 힘으로 일초에 19마일이란

빠른속도로 궤도를 달리고 있을까요?

다윗이 말했듯이 19:1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비틀기즈 별을 하늘에서 반짝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틀기즈별을 그의 손가락으로 반짝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써 나를 붙들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떨어질까 염려할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하신 그의 왕국의 후사를 삼으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의 풍성함의 깊이를 더욱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계속하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안에서 발견되고 주님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앞에 험도 없이 나를 나타내시고 보존하시기에 예수님 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데 반하여 그의 요구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발끝으로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광대하심을 담념으로 조금 맛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무한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관대 주님께서 친히 나를 방문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사오며 지금도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세계에 높임을 받기를 기원하오며 제가 오늘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걷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기사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관찰 한결과 하나의 은하수가 2,000,000,000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 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희미하게 만원경으로볼수있는 한 은하수에서2,000,000,000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만원경으로 발견 했다고 합니다.

이에너지의 근원은 미지수라고 천문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은하수는 AR220로 알려져있고 지구에서 300,000,000 광년을 여행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하수는 1966년에 발견 된것인데1983년에 설치된 적외선 천체궤도측정 만원경으로 그 날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은하수는 드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개 에너지의 99%가 가시적인 빛보다 열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켈리포니아 기술 연구소에서 비 토마스 소퍼 박사가 말했습니다.

ARP220의 에너지는 분광에서 그리고 양에서 적외선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너지의 방출이 여태까지 발견된 은하수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적외선 은하수 입니다.

소퍼 박사는 적외선 은하수는 빛보다 열을 더 방출하는 은하수라고 미국천문학회의 년중 회의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다른 은하수는 같은 양의 빛과 열을 방출하므로 이것은 적외선 은하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적외선 은하수가 태양보다2,000,000,000더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ARP220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될것입니다.

저광대한 우주는 아주흥미 진진한 것으로 가득차 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그기에 탐험을 하러가게 될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손가락이나 만지작 거리고 거문고나 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듯이 더욱 놀랍고 흥분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사귀을 갖는 일에서 더욱자라며 이번주도 당신에게 크게 유익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